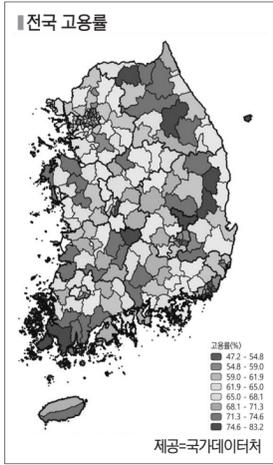


전남 군지역 고용률 '전국 상위권'...신안 78.2% 2위



청년 부진에 전국 구 지역 고용률 첫 하락

광주지역도 남구 0.9%p·서구 0.2%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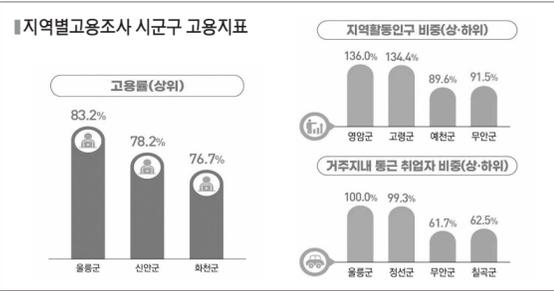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전남이 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상위권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며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냈다.

24일 국가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 지표'에 따르면 전남 군 지역 고용률은 70.0%로 강원(7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신안군은 78.2%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남 시 지역 고용률은 62.3%로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돌았으며, 광양시가 67.6%로 가장 높았고 목포는 59.0%로 가장 낮았다.

광주의 경우 고용률 상위 지역은 광산구(62.8%)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동구(58.6%)와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전년과 비교해 북구(1.6%p), 동구(0.5%p), 광산구(0.1%p) 순으로 상승하고, 남구(-0.9%p), 서구(-0.2%p)는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특별·광역시 구 단위 평균 고용률은 58.8%로 전년대보다 0.2%p 하락했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에 이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지역 고용률(58.8%)보다 시 지역(62.4%)과 군 지역(68.9%)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에 비해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 청년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옹진군(79.0%), 대구 군위군(76.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인 반면 부산 영도구(47.2%), 대구 서구(52.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보다 0.2%p 상승했다. 서울 관악구(5.7%), 인천 부평구(5.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4000명 증가한 76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쉬었음'과 '취업 준비' 등을 포함한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14만1000명 늘어난 195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는 2021년 188만5000명이었었다.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4%로 전년대와 같고, 실업률 역시 2.9%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군 지역 취업자 수는 1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8.9%로 0.5%p 하락했고, 실업률은 1.3%로 0.2%p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시, 인공지능 '최고급 인재' 키운다

시사관학교 7기 220명 모집...1인당 4800만원 집중 투자
교육·취업·창업 있는 전주기 지원...4월 중 합격자 선발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단순 인력 배출을 넘어 산업 현장에 주도할 최고급 AI 인재를 집중 육성해 지역 AI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제7기 AI사관학교 교육생 220명을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7기는 교육 체계와 투자 구조를 전면 개편한 'AI 최고급 과정'으로 운영된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다. 2020년 개교 이후 5년간 총 1528명의 전문 인력

을 배출했으며, 최근 3~5기 수료생의 취업률은 76%를 기록했다.

제7기 과정은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존 84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렸다. 선발 인원은 330명에서 22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교육 투자액은 기존 2500만원 수준에서 48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투자 밀도를 높여 심화 교육과 실전 역량 중심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방식도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선발 단계에서 코딩 평가를 강화해 기본 역량을 검증하고, 교육 과정에는 탐별 전문 멘토를 전담 배치한다. 팀당 1000만원

을 지원해 5개월간 인공지능 모델 기획부터 개발·검증·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수행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실제 산업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문제 해결 경험을 쌓도록 설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즉시 투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생 지원도 확대된다.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된다.

교통비와 식비, 타지역 교육생 숙박비를 지원하고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도 제공한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콘텐츠 구매비와 응시료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현지 개발자 토크콘서트, AI·IT·SW 전시회 및 기업 탐방, 선후배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외 글로벌 전시회 참가 기회도 제공한다.

수료 이후 지원도 이어진다. 예비 창업 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개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기업 이수료생을 채용할 경우 월 240만원씩 6

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교육·취업·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인재와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조성, AI 영재고 설립 추진, Arm 스를 운영, 지역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등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전문과정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번 최고급 과정 개편은 이 같은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강경정 시장은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를 전국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지역 청년들이 광주·전남에 정주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기 교육생 모집은 시사관학교 누리집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학력·전공·성적·거주지와 관계없이 18세부터 39세까지 전국 청년 미취업자는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코딩 실습평가, 면접, 온라인 준비과정 이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화순 농협하나로혼수센터 리뉴얼 개장 공간 재정비·품목 확대...조합원 밀착형 서비스 강화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는 24일 화순 농협하나로혼수센터(화순 혼수센터)에서 박종근 이사장과 문화속 임직원 대표, 호남지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뉴얼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도약을 알렸다.

1991년 문을 연 화순혼수센터는 전국 농협 가운데 유일하게 조합원 회원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다.

농협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목표로 출발해 30여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이번 리뉴얼은 오랜 기간 조합원과 동행해 온 화순혼수센터를 보다 현대적이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객 중심으로 쇼핑 동선을 재구성해 매장 환경을 개선했으며, 가전·가구를 비롯해 주방

용품, 귀금속, 침구, 파코골프용품 등 취급 품목을 확대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윤리 조합원 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했다. 임직원에게 하나로마트를 직접 찾아가 장터를 여는 '찾아가는 하나로장터'를 운영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조합원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박종근 이사장은 "농축협 조합원 편의 증진을 위해 화순혼수센터 임직원들이 하나로마트를 직접 찾아가 장터를 여는 '찾아가는 하나로장터'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조합원과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화순혼수센터 견학을 확대해 매출 증대와 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14만개 늘어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4만개 늘어 소폭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개 가까이 줄며 장기간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센터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13만9000개 증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4년 4분기 15만3000개에서 2025년 1분기 1만5000개로 쪼그라들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2분기 11만1000개 늘었고

3분기(13만9000개)까지 소폭 회복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34만9000개로 73.3%를 차지했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7만2000개(15.6%)였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30만6000개다. 11.0%를 차지한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16만7000개 일자리는 소멸됐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에서 일자리는 12만7000개 감소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줄고 있다. 연립수스

심헌문화재단, 지역인재 장학금 2억8410만원

모아그림 후원...21년간 30억여원 지급

모아그림이 후원하는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치영)은 24일 KBC광주방송 공개홀에서 '제2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심헌문화재단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장학생 169명에게 총 2억84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치영 심헌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해 온 장학생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장학금이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헌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 장학사업을 시작해 현재 172억원의 출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총 29억7238만원의 장학금을 1997명에게 지급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시, 청년 구직활동수당 참여자 1147명 모집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19~39세 대상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2차 참여자 1147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추진하는 광주 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창업준비형 △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새롭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설정과 구직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재학생·휴

학생·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최종학력 졸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2차 참여자 1147명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계획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중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표하며, 4월부터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선정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권운수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청년정책 알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